

김장철 대비 천일염 등 소금 수급 상황 점검

- 10. 20.(금) 용인시 대상(주) 양지물류센터에서 수급 상황 점검
- 조승환 장관, 현장에서 정부비축물량 공급, 필요시 수입산 비축 방출 등 강력한 공급 안정 의지 피력 후 업계 협조 당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엄중한 물가 상황 속에 김장철 대비 천일염 등 소금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0월 20일(금) 국내 대표 천일염 가공업체인 대상(주)의 양지물류센터(경기 용인시)를 방문한다.

조 장관은 물류센터에서 소금 제품과 천일염 재고 현황과 출고 과정을 점검하면서, 김장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말부터 우선 정부비축 ‘햇’ 천일염 1,000톤을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여 소비자들이 현재 소비자가격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비축 물량은 김치가공업체에도 공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가격·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산 천일염도 비축하여 엄격한 안전 검사를 거친 후에 공급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에서 “해양수산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천일염의 수급과 안정적인 공급에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천일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소금 유통가공 업체는 물론 김치가공 업체에서도 원가 절감 등 가격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사무관	임성수 (044-200-5617)